

광주 전 학년 등교후 원격수업 병행 검토

내일 3차 등교 8일 전학년 등교
전교생 등교편 거리두기 불가능
광주·전남교육청 대책 마련 몰두
자가진단 항목 오한·근육통 추가

지역 교육당국이 '코로나19' 방역·예방
지침을 강화하고, 원격수업과 등교수업 병
행 방안을 검토하는 등 코로나 사태 장기화
에 따른 대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1일 광주·전남도 교육청에 따르면 3
일 고1·중2·초등 3~4학년의 등교 개학에
이어 8일 중1과 초등 5-6학년이 등교하게
되면 모든 학년이 수업하게돼 학생들의
밀집도가 크게 늘어난다. 일반적으로 광
주지역 초등학교의 경우, 현재 1·2학년만
등교한 상태로 한 학교당 300여명이 수업
을 받고 있으나 추가 개학에 따라 3일에는
600명 이상 8일에는 1000여명이 등교하

게 돼 밀집도가 극에 달할 수밖에 없는 실
정이다.

이에 따라 학교 내 방역 등 예방수칙 준
수를 강화하고, 생활방역(생활 속 거리두
기)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
아지고 있다.

교육부는 우선 등교 1주일 전부터 교육
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을 통해
실시하는 자가진단 항목 중 설사, 메스꺼
움(오심)을 빼는 대신 오한·근육통·두통
을 새로 추가하고, 미각·후각 마비는 미각
·후각 소실로 수정했다.

이번 조치는 교육부 자가진단 항목이
방역당국의 코로나19 대응지침과 달라서
혼선이 빚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새 분류기준을 반영
해 자가진단 설문 항목을 수정하고, 학생
과 교사에게 안내했다.

교육부는 질병과 협의해 학교 내에서의
심증상자가 발생하면 6월 한 달 동안 코
로나19 진단검사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
한 뒤 PC방이나 당구장에 다녀간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학교에서 선별진료소를 방
문해 검체를 채취한 경우, 별도의 조치가 있
기 전까지 자가격리를 준수해야 한다는 행
동요령을 안내하기로 했다. 아울러 추가 등
교로 학교 밀집도가 상승함에 따라 원격수
업과 등교수업 병행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
기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애초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원격수업과 등교수업 도입
학교와 방식 등을 지난 주말에 결정하기
로 했으나 추가 등교 상황 등을 지켜보고
도입 여부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시 교육
청은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전체 학생 수가 초등학교 1000명 이상, 중
학교 800명 이상, 고등학교 900명 이상인
학교 중 초 2곳·중 4곳·고 1곳을 도입 대
상으로 검토했었다.

이에 대해 시 교육청은 모든 학년이 등
교하는 8일 이후 상황을 보고, 학교 구성

원들의 동의를 얻어 최적의 방안을 결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남도교육청 역시 지역 감염확산 추이
와 등교수업 진행상황을 살펴보고 있으
며,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교별 상황을 점
검해 최종적으로 수업방식을 결정토록 지
침을 내린 상태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학부모들의 불
안감은 여전하다. 광주·전남의 코로나19
관리가 안정적이지만 만약 학교에서 확진
자가 있을지 걱정이 크다며 "현재로선 학생
자가진단과 교내 방역 등 예방수칙을 철
저히 지키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지
역사회 감염이 확산하고 학생 확진자가
다수 나올 경우 등교수업 자체가 중단되
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제대로 치를
수 있을지 걱정이 크다"며 "현재로선 학생
자가진단과 교내 방역 등 예방수칙을 철
저히 지키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조선대-상지대, 공영형 사립대 추진 협력

상지대 교무위원 5·18모지 참배

조선대학교와 상지대학교가 '공영형 사
립대' 추진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1일 조선대에 따르면 이날 상지대학
교 정대학 총장을 비롯한 상지대 교무위
원 23명은 이날 오전 5·18광주민주화운
동 40주년을 기념해 국립5·18민주묘지
를 방문·참배했다.

민영돈 총장은 "역사적으로 공통점이
많은 조선대와 상지대는 혼란스러웠던
과거를 극복하고, 이제 공영형 사립대로
 거듭나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아 노력하려
한다"고 밝혔다. /채희종 기자 chae@

이후 조선대 본관 회의실에서 정대학
총장을 비롯한 상지대 교무위원과 조선
대 민영돈 총장을 비롯한 조선대 교무
위원·정중훈 조선대학교병원장 등 총
37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호교류 협정을

맺었다.
협약 내용은 ▲공영형 사립대 추진을
포함한 대학의 공공성 강화 ▲교수 및
학생의 학술활동 교류 ▲학술 공동연구
및 학술회의의 공동 개최 ▲출판물, 도서,
교육자료 및 정보의 상호 교환 ▲시설물
의 상호 이용 ▲학생 해외봉사, 어학연
수 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동운영 ▲기타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이다.



장성호 제2출렁다리 개통 장성호 제2출렁다리가 1일 개통했다. 장성호 제1출렁다리(옐로우 출렁다리)로부터 1km가량 떨어진 장성을 용곡리에 설치된 제2출렁다리(황금빛 출렁다리)는 길이 154m로 옐로우 출렁다리와 같고, 폭은 1.8m로 제1출렁다리보다 30cm 더 넓다. /최현배 기자choi@

광주 동구, '소규모 재생사업' 2곳 선정

광주 동구가 국토교통부 주관 '2020년
도 주민예산 소규모 재생사업' 공모에서
2곳이 선정돼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의
발전기반을 마련했다.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소규모 재생사업'은
향후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확대·발전기
반을 마련하기 위한 마중물 사업이다.

동구는 지난해 선정된 제1동 '무등로
3·3·3 리노베이션 프로젝트(사업비 2억
원)'를 시작으로 2년 연속 소규모 재생사
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엔 선

정된 2개 사업은 자원1동 '소태동 소통꽃
담을 피우다'(사업비 4억원)와 지산2동
'역사와 문화가 흐르는 자산이음'(사업비
3억원)으로 총 사업비 7억원이 투입된다.

지역1동은 동구문화센터 일원을 대상
으로 무등산국립공원 진입 관문의 지역특
성을 활용한 중심천로 환경개선사업과 테
마별 골목재생사업을 펼친다. 또 지산2동
은 자산유원지와 다양한 인문학적 유산을
강점으로 한 스토리텔링을 통해 자산이음
길을 조성하는 등 관광자원화할 예정이
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국과수 연구실장 "전일빌딩 탄흔은 헬기사격에 의한 결과물 유력"

광주지법 전두환 재판 증인 출석

전일빌딩에서 발견된 탄흔은 헬기사격
결과물일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국과수
사건연구원 총기연구실장의 증언이 나왔다.
전두환(89)씨가 치매를 앓고 있다는 주
장과 관련, 재판부는 "만약 피고인이 치매
로 변별 능력이 없거나 질병으로 거동이
불가능하다면 공판 절차를 중지해야 하는
데 그런 사유는 없다고 판단해 재판을 진

행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동환 국과수사건연구원 총기연구
실장은 1일 오후 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
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씨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
"더 높은 곳에서의 사격이 아니면 건물 10
층 바위에 탄흔을 만들 수 없다"면서 "당시
주변에 더 높은 건물이 없었다면 당연히 비
행체 사격이 유력하다는 것이 제 견해"라
고 말했다.

전일빌딩은 1980년 당시 옛 전남도청
일대에서 가장 높은 건물로, 2016년 리노
베이션을 위해 노후화 정도와 사적 가치를
조사하다가 10층에서 다수의 탄흔이 발견
됐다.

국과수는 광주시의 의뢰를 받고 2016년
9월부터 2017년 3월까지 4차례에 걸쳐 현
장 조사를 진행해 245개(외벽 68개, 실내
177개)의 탄흔을 발견했다. 국과수는 이
후 광주지법 감정 요구에 따라 총 281개를

발견했고 하나의 총알이 여러 탄흔을 만
들 수 있어 총 270개의 탄흔을 인정했다는
감정서를 냈다.

김 실장은 "주로 40~50도 안팎의 하향
사격이 많았고 수평 사격, 상향 사격 흔적
도 있었다"며 "이런 식으로 각도를 바꿀 수
있는 것은 비행체 사격밖에 없어 10층 탄
흔은 헬기에서의 사격이 유력하다고 판단
했다. 총기 종류는 특정하지 못했다"고 덧붙
였다.

한편, 전씨는 이날 재판부로부터 불출
석 허가를 받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 서구,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설치 지원

광주 서구가 대형음식점이나 집단급식
소에서 감량기를 설치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설치 지
원사업'을 광주지역 최초로 추진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이 많은 업소에 감량기를 적극 유도기 위
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관내 다량배출사업장 및 사업장
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지원금액은 감량기

구입가격의 50%이며, 지원한도는 업소당
1대로 최대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지원이 가능한 감량기는 폐기물관리법
에 명시된 부산물의 수분함량 등 적정기
준을 충족해야 한다. 감량기 설치비 지원
을 희망하는 업소는 오는 8일부터 19일까
지 서구청 청소행정과를 방문해 신청서
및 관련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신세계안과

10인의 안과전문의 분야별 진료

노안 백내장

스마일 라식·라섹

녹내장

당뇨 망막병증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 신세계안과 1566-9988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옥상지붕공사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